

주님의교회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통권 제 93호 발행일 : 2004년 8월 1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올라 (롬 12:15)
2004년 교회표어: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02-416-5181 www.pcltv.org

기사제보 :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기사에게, 함즐함울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mobile: 011-466-4736 email: chhylee@korea.com

캄보디아 의료선교팀, 오늘과 내일 출국

썩트네, 손수만든 케익으로 생일잔치 열어



7월 25일 썩트네의 7월 생일잔치가 열렸다. 이번 달 생일자는 단 한 명 '다정'이다. 커다란 케익에 모든 이들이 또 한 번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유인 즉 썩트네를 섬기시는 고마운 손길이 있어서이다. 썩트네 생일잔치에 집에서 직접 홈메이드로 수제 케익을 커다랗게 만들어, 썩트네를 섬겨주시는 분이시기에.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섬겨주시는 분들과 그 외 섬겨주시는 분들께 썩트네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예수님도 2000년 전 그러하셨듯이, 섬김이 있는 곳에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만든다. 썩트네는 2004년 여름행사를 준비 중이다. 8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2시 30분정도의 행사를 계획, 준비 중이다. 지난 주 1차 신청서를 부모님들께 돌렸고, 8월 첫째 주 오늘 2차 신청을 접



지난 수요일에 캄보디아 선교팀의 특송하는 모습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은 오늘(1일)과 내일(2일) 출국 예정이다.

수중이다. 원하시는 분들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1층 유아부실로 오셔서 따로 접수 가능하다. 썩트네는 '가족'이다. 애정 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2여선교회, 앞뚝보는 할머니들의 안식처 방문

제2여선교회는 7월 14일 앞뚝보지 못하는 할머니들의 안식처인 '루디아의 집'에 다녀왔다. 더운날씨라서 아침일찍 교회에서 만나서 차량으로 이동하였다. 항상 차

량봉사로 수고해주시는 최영순권사, 권승남집사, 이정남집사, 손정희B집사가 수고 해주었다. 차안에서는 그 동안에 믿음생활과 일상을 이야기하며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기도 하였다. 루디아의집에 도착하여 할머니들과 운동을 함께하고 개천을 따라 산책을 했다. 많이 불편하신분은 두 사람이 양쪽에서 부축을하고 다른 할머니들은 회원들과 짝을 이루어서 산책을 하였다. 점심시간에는 준비해간 음식과 과일로 맛있는 식사를 했다. 식후행사로 그동안 회원들이 준비한 춘극 '베다니의 삼남매'를 공연하였다. (2면에서 계속)

함즐함울 8월 발간안내

교회신문 함즐함울이 8월에는 1일과 15일 2회 발간되며, 다른 주일에는 휴간됩니다. 교구, 교회학교 행사 및 단기선교 소식을 정리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십계명판을 받고 직접

10가지 계명 적어보기도

7월22-24일, 경기도중부수련원에서 소년부 수련회 가져

소년부는 "가자, 약속의 땅으로!"라는 주제로, 출애굽의 여정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를 나누어 조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고통을 체험할 수 있는 '애굽에서의 고난'과 하나님께 찬양과 춤을 추면서 우리의 잘못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뒤 광야생활 체험과 '구름기둥과 불기둥 장막치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개인별로 10계명판을 받고 자신이 직접 10가지 계명을 적은 후 성막의 구조와 의미를 깨닫는 7가지 센터학습 형식으로 성막을 경험하며 의미를 살펴보았다.



청년부, 중국비전트립 본격적으로 준비

청년부가 2004년 8월 4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비전트립을 가게 된다. 청년부의 해외 Out-reach와 Vision Trip은 다섯 번째를 맞이한다. 중국 비전 트립 팀은 지난 7월 5일부터 월,화,수,목 저녁 7시와 토요일 오후 3시 기도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7월 18일에 유영현 팀장과 허소정 부팀장을 선출하고, 이들의 섬김으로 모든 팀원들이 중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7월 24일 엔디 간사님의 중국 비전 트립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7월 25일에는 캄보디아팀과 함께 비전트립 헌신 예배로 4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팀원들이 예배의원으로 섬기고, 중국어와 캄보디아어 찬양으로 특송을 드리는 시간이었다. 이 시간에 ccm 가수 채한성 형제가 함께했다. 떠나기 전 날인 8월 3일 저녁에는 기도회 및 학습 훈련이 있을 예정이다.

안수집사회, 총회 열어 정양재 신임회장 선출



안수집사회는 7월 25일(주일) 오후 1시 30분에 5층 찬양대실에서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임직한 열네명(강진식, 김용일, 김익수, 문완홍, 박동수, 서치영, 신정웅, 송국환, 이단열, 이종복, 임창남, 지우철, 최종만, 최종명)의 안수집사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올 정기총회를 가지면서 금년 안수집사회를 섬길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 새 임원진 (회장: 정양재, 부회장: 이종석, 총무: 서치영, 회계: 이종복, 기록: 조성득)은 서로를 세워가는 격려와 깊은 교제를 통해 안수집사회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

했으며, 이 날 안수집사회는 안수집사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겸손히 교회를 섬기기 위한 활동계획을 세우면서 말씀묵상과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을 스스로 다짐했다.

4교구 수련회, 『사림의 은총』

4교구는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23일(금)부터 24일까지 『사림의 은총』이라는 주제로 포천 염광수련원에서 교구수련회를 가졌다. 4교구는 교구장(양동훈, 성백술), 교구권사(김양자, 고초순, 오영실, 김금숙, 송경너), 교구안수집사(신정웅, 정해춘, 김창안) 등 중직자의 적극적인 후원과 기도와 참여로 말미암아 교구가 세워지고 식구들이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다. 양동훈장로는 티셔츠를 후원하여 티셔츠를 입음으로 해서 수련회 내 일체감을 느낄 수 있었고, 성백술장로는 시상식 상품으로 타올과 아이들 수영을 후원 해주었다. (2면에서 계속)

실만한 물가의 서점에서 봉사할분 찾습니다



주일날 8:30부터 오후3시까지 서점관리 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하실 분은 남창희 집사(016-502-8287)나 서점으로 직접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춤추게 하소서

- 중등부 수련회

중등부는 지난주일(25일)부터 화요일(27일)까지 강원도 화천에 있는 광덕 그린농원에서 교사와 학생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 수련회를 가졌다. (2면에서 계속)

세계기독교인대회, 9월14~18일 열려 민박신청받습니다

2004세계기독교인대회가 한국기독교인연합회 주관으로 9월 14-18일에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에서 열린다. 기독교인 연합회의 목표와 사역 증진을 위해 각국 기독교인연합회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 및 토의를 통해 화성화시키고자 하는 세계대회이다. 이번대회는 역사상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필섭장로(예비역 대장)가 세계기독교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열리는 관계로 더욱 더 의미가 있으며 우리교회에서는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당회에서 결의하여 지원하였다. 우리교회에도 임헌표집사(예비역 중장)를 비롯하여 많은 군출신 성도들이 있다. 또한 대회준비위에서는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해왔으며, 초청자 4명의 민박을 요청하여 왔다. 탄자니아출신의 현역 및 예비역 장교들로서 9월18-20일, 2박3일 동안 민박이 가능한

성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면 다시 개별적으로 연락을 받게 된다. Herbert Mwaimu (54세, 예비역 대위), Ayoub Emu Mwakangata (51세, 현역 대령), Ayub Jilaoneka Mgimba(51세, 현역 소령), John Lubango Ntwale(62세, 예비역 대령) 등이다. 준비위에서는 주님의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mcf-korea.org 를 보면 되고, 임헌표집사(019-526-5094)나 이창현 목사(011-466-4736)에게 문의하면 된다.

(1면에 이어서)

2여선교회, 앞뚫보는 할머니들의 안식처 방문

할머니들은 제2여선교회가 오는날이면 존경을 기대하면서 기다린다고 한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드리니 할머니들 표정이 밝아지고 회원들모두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다. 9월에 올때는 존극준비를 더 정성껏 하리라고 다짐했다. 회원들 모두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드리고 돌아왔다.

유아부 소식

지난 주일(7월 25일) 유아부에서는 주일예배(11시 30분 시작) 이후 2부 순서로 한달간 목상해은 말씀을 암송하고 7월 중에 생일이었던 친구들을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경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고, 암송한 어린이들에게는 유아부에서 준비한 선물이 주어졌다. 그리고 생일잔치를 통해 즐거운



교제 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문의곤 협력목사 인터뷰

‘예루살렘 평화행진 2004’ 크리스찬 2500명이 함께



‘예루살렘 평화행진 2004’ 개요

2004년 8월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 교회와 미주 등 한인교회의 성도들이 참여한다. 분단의 아픔을 겪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역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모임이다.

평화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팔레스타인에서는 구제와 의료봉사와 어린이 운동회, 청소년 문화공연 등을 열 것이고, 컴퓨터를 기증할 것이다. 예루살렘 쪽에서는 민속품 전시회, 탈춤,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친선 축구대회 등이 펼쳐져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참가인원

2500명 정도가 가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참석자 가운데는 교역자도 있고, 청년과 청소년들도 있고, 가족이 함께 가는 경우도 있다. 모두 개인적으로 자원해서 가는 것이다.

행사의 취지

이 행사를 통해 중동에 대한 선교의 필요성, 기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나아가 그 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래 이 행사는 인터콧(INTERCOP)이라는 선교단체가 개최한 것이다. 하지만 그 취지가 좋아서 예수전도단도 함께 공동 주최하게 되었다.

개인적인 바램

그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싶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셨듯이 나도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할 것이다. 그 땅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앞으로 예수전도단도 중동 선교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

간략한 일정

7일 첫날에는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콘서트를 열 것이다. 그 지역의 시장과 정부관계자들도 같이 참석하여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둘째 날에는 기도회와 저녁 야외 집회가 있을 것이고, 셋째 날에는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지역의 베들레헴 예수탄생지 광장까지 5km를 행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곳에서 저녁 집회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다시 예루살렘에 7시간 정도의 기도회와 축제 형식의 집회가 열릴 것이다. 예루살렘 시에서는 이 행사가 열리는 기간을 한국의 문화소개 주간으로 결정하였다.

당부의 말씀

지금까지 한국에서 1000 교회가 중보기도의 약속을 해주었다. 주님의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행사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다. 무슬림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적대할 대상이 아니므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들을 향해 열려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정세가 좋아지고, 기회가 된다면 주님의교회도 중동선교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

(1면에 이어서)

4교구 수련회, 『사림의 은총』

첫날에 인상에 남는 프로그램은 공동체 훈련을 통하여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었던 것과, 이인호 목사님의 특별찬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소명을 다짐하는 시간, 그리고 이어서 촛불기도회에서 고초순권사, 김금숙권사, 김창안안수집사의 인도로 교구와 교회와 나라,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번 수련회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암투병중인 이선화자매의 가족들이 참석하여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수련회’라는 인상과 함께 ‘나도 저렇게 힘들 때 응답받고 사랑받을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을 모두가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날 오전에 『경청과 나눔』의 시간에 6명의 간증자가 교구 내에 세워져서 조용히 울고, 함께 웃는 감동의 시간을 자아냈다. 이 모든 수련회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김 도우미들(이호윤, 최해경, 나영미, 최재경, 신형섭, 김선희집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임을 맞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1면에 이어서)

성령의 바람으로 춤추게 하소서

둘째날 저녁 세족식과 부흥회를 마치고 아이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선생님! Passion of the Christ 영화를 전부터 보고 싶어요. 더 찬양하고 싶어서 모든 집회가 끝난 다음에도 자지 않고 여기 왔어요. 더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깊이 알고 싶어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렸어요. 세족식을 하는데 제 발을 씻으며 기도해주는 선생님 목소리에 한

번도 흐르지 않던 눈물이 이젠 멈추질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손이 점점 가벼워지고, 누군가 제 팔을 잡고 있는 것처럼 하나도 무겁거나 아프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번 교회에서 수련회를 다녀왔었지만, 이런 경험을 한 건 이번 수련회가 처음이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힘겹게 느껴졌던 것을 보는 것 보다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더 기쁘고 더 깊다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번 수련회는 참가한 모든 교사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대함을 심어주셨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으며, 참석한 모든 사람을 깊이 만나주셨고, 중등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음껏 해주셨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성령의 거룩한 불씨를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지속하며 성령의 바람으로 중단 없이 춤추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오늘 기도

